

청년포럼 [슬기로운 청년생활 1장] : “한반도 평화, 청년의 온도” 녹취록 (180327)

□ 여는말 - 정병오 교사 기윤실 공동대표

기윤실이 만들어진지 30주년이다. 첫 시작이셨던 손봉호 교수님이 80세이시다. 오래된 단체이다보니 청년 세대와의 간격이 있다. 그래서 이번 해에는 청년운동본부를 시작하여, 청년 포럼을 매달 기획하게 되었다. 이번 포럼을 통해서 청년들과의 많은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다. 조용히 있다가 가실 생각하지 마시고 많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궁금한점이나 의견이 있으면, 메모하셨다가 발제 후에 말씀해주기를 바란다.

□ 2018년, 남북관계를 읽다 - 윤환철 미래나눔 총장

2017년 12월 선교한국에서 기도제목 중 하나이다. “북한 정권이 남한 정권에 눈을 돌릴 수 있도록” 기도제목을 냈다. 이 때 당시 기도제목을 내면서도 과연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긴가민가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때에는 무섭게 들어주신다.

롬 12:18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는 말씀이 있다. 나는 이 말씀이 통일의 기초라고 생각한다. 통일은 평화로 가는 수단일 때만 의미가 있다. 신약의 명백한 말씀은 평화이지, 통일이 아니다.

우리는 단방중심으로 살고 있다. 전 세계 20개 국가 이상이 연방국가로 살아있다. 지구상의 가장 큰 연합체는 유럽이다. 연방제는 미국이 사는 방식이고, 국가 연합은 유럽이 사는 방식이다. 전세계 사는 표준화된 방법이다. 연방제나 연합체는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고민해온 방식이다. 가장 현실적인 통일방안 중에 하나이다.

그런데 이것의 반대 캠페인을 하는 기독교 기획 세력이 있다. 우리보다 천배쯤 많은 사람들이 짜라시에 노출이 되어있다. 정상적인 통일 논의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한반도 2018년은 평화를 잃어버린 지 108년째 되는 날이다. 외세에 의해 분단이 된지 73년째이다. 정상회담이 18년째이다. 이 긴 세월동안 우리가 이 관계를 어떻게 진전시켜왔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해결의 긴박감이 생기지 않는다. 어떠한 사회가 108년째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

트럼프는 유엔 총회 생활에서 북한 사회를 완전히 파괴시킨다고 말하였다. 유엔은 평화를 위한 단체이다. 유엔에서는 2017년에 대북 선재 전쟁 금지법을 발의하였다.

전쟁은 불가능하다. 2월 10일에는 김정은의 친서가 배달이 되었다. 3월 6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가 도달했다. 이 친서에는 대북정책에 관한 것이 있을 것이다. 3월 8일에는 정의용 안보실장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자는 질문에 대답을 하였다.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이 외부의 압박의 의지나 관여의 의지를 모아가지고 북한을 상대해서 북한으로부터 저항 의지를 꺾어버리고 협력의 의지를 살려내는 것이 대한민국의 역할이다. 당근과 채찍을 가지고 북한과 협상을 해서 북한이 나쁜 짓을 하지 못하고 착한 짓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여 정부 때 너무 늦게 시동을 걸었다. 그래서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기억을 가졌다. 문재인이 그 때 청와대 비서실장을 하였다. 빨리 해야 되는 현실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이듬 해 6월에 바로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 모든 공약이 세트에 있었던 것이다.

통일이라는 것은 정치적 통합을 이뤄야 하고, 서로 갈아져야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결국 통합이 통일이다. 통일이 되었다는 것은 같이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북한 출신과 남한 주민이 차별이 이뤄진다면 그것은 통일이 아니다. 우리는 같이 살 수 있느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제안하는 바이다.

핵 문제의 현실을 우리는 짚어야 한다. 전 세계의 핵 문제의 현실은 우매한 지혜이다. 지구상의 15395개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다. 지구를 여러 번 날릴 무기를 쌓아두는 것은 우매한 짓이다. 인류가 최초로 핵을 사용한 시점이 1945년 히로시마 나가사키이고, 마지막도 히로시마 나가사키이다. 인류는 딱 한번 쓰고 다시는 쓰지 않아야 하는 현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핵 문제의 현실은 우매한 지혜이다. 핵을 누군가가 쓴다면 절대 이득이 되지 않는 국제관계가 된다. 물론 많아서 좋을 거가 없고,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서울에 도착할 수 있는 핵 무기의 개수는 7200개 정도이며, 북한에서 올 수 있는 것은 10개 미만이다. 북한 핵 때문에 아무런 협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아이폰은 중국에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중국은 핵 무장국가이며 최대의 공산국가이다.

유엔총회 회의록의 원문이다. 1948년에 유엔총회가 모여서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한 회의록이다. 이런 것을 교과서에 들어있지 않다. 대한민국의 주권범위에 대해서 선언한다. 법의 의한 정부가 탄생하였다.

3분의 2는 남한에 살고 3분의 1은 북한에 살고 있는 지역 중에 다수가 살고 있는 지역 선거에 기초해서 그 부분에 유권자들의 의견을 모아 성립되었다. 유엔임시위원단이 이 모든 것을 감시하였고, 합의하였다. 이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 밖에는 없다.

대한민국정부는 북한 땅을 소유한 적이 한 번도 없다. 50년에 전쟁이 일어났다. 6개월 만에 끝날 수도 있었던 전쟁이다. 조금만 밀고 올라가면 한반도를 군사적으로 점령할 수 있었다. 10월 17일날 점령한 북한지역에 행정관을 파견하려고 했지만 유엔지사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지구상 어디서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이야기이다. 1991년에 남북한이 유엔의 구성원이 되었다. 이는 서로의 국가성을 인정하였다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수교를 하였다. 전범국가가 수교를 하려면 배상금을 물어내야 했다. 한반도 전체 배상액을 다 물어내라고 할 수 없었다. 일본은 절반만 주려고 하였다. 그리고 일본이 이겼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배상이 그대로 남아있다. 북한하고 일본이 수교할 때는 일본이 엄청난 양의 배상액을 물어내야 할 것이다.

북한이 붕괴하면 그것이 통일인줄 아는 사람이 한 두명이 아니다. '저 나라를 망하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 기도인가?

도덕의 경계라는 것이 있다. 적대관계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나의 일은 적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었다. 지식 결핍의 악순환이 있다.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의 가장 큰 장애물은 지식의 결핍이다. 어느 교회를 가나 북한을 위해 기도한다는 분은 항상 있다. 그런데 그러한 선한 분들이 왜곡된 지식으로 악을 행하는 분들이 있다.

결론으로는 정상적인 정치권력을 유지하기를 바란다. 분명히 교회 안에는 방해 세력이 있다. 기획 유포 돈쓰는 데가 있다. 이런 곳에 답장을 하라. 점잖게 살려고 한다면 평화는 오지 않을 것이다.

□ 청년 세대, 평화의 온도 - 정재훈(기윤실 회원)

1. 출근길 잠을 깨운 단일팀 선수의 인터뷰

매일 아침 통근버스에 올라 라디오를 듣는다. 아침뉴스를 챙겨듣고 피곤한 날은 이어폰을 꽂은 채 즐기기도 한다. 뉴스를 들을 때마다 '이러다 진짜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올림픽 하긴 하는 거야?' 걱정할 때가 엇그제 같았는데... 극적이어서 더욱 쫄깃한 걸까? 기대는커녕 별관심도 없었지만 큰 감동을 준 평창 평화올림픽이 폐막을 향해가고 있을 때, 올림픽 기간 중 가장 '핫했던 여자아이스하키팀이 해단식 후 라디오에 출연해 인터뷰¹⁾하는 것을 들었다.

북한 선수들은 '슛'을 '쳐넣기'라고 하고 '패스'는 '연결, 연결'한다며, 남북한 선수들은 처음엔 어색했지만 금방 친해졌고 헤어질 땐 펄펄 울며 벌써 그리다고 했다. 그렇게 훈훈한 인터뷰를 이어갈 때만 해도 나는 건성으로 듣고 있었다. 그러다 **"단일팀을 또 한다면 찬성할 것 같아요? 선수들 입장에서 어때요?"**라는 앵커의 질문에 선수들이 잠시 머뭇거리고, 필자는 이 대목에서 잠이 깬다. 불과 몇 초 안되는 시간이었지만, 머뭇거리며 왜 좋다고 말을 안 하는지 의아했다. 한 선수는 단일팀의 의미나 취지는 좋지만 남북간 약간의 수준 차이가 있고 종목특성상 단일팀을 하려면 한 3~4년은 꾸준히 같이 연습해야 경기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선수는 **꼭 단일팀이 아니라도 상대팀으로 좋은 경쟁자로 만나고 싶다는** 어려운 속내를 밝혔다.

내가 곤대여서 그런지, 아니면 관련 업계 종사자라서 그런지 선수들의 대답이 실망스러웠다. 그러나 인터뷰를 계속 듣다보니 충분히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었다. 우리 여자 아이스하키팀에게 공식적인 팀이란 오직 국가대표 1개 팀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학팀, 실업팀이 없으니 자연스럽게 국가대표

1) TBS <김여준의 뉴스공장> 2월27일자, 신소정, 조수지, 조미환 선수(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와의 인터뷰

선수들은 소속팀(?)이 없는 선수들이었다. 국가대표가 아니면 같이 경기를 할 상대팀조차도 없다는 것이다. 고등학교 재학 중인 선수들은 당장 대학 진학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상황이니, 북한 선수들과 단일팀을 하기보다 차라리 상대팀으로 만나 같이 경기를 하고 싶다는 것이다. 올림픽기간 큰 관심을 받았지만, 올림픽 후에는 자신들이 잊힐 것이라는 불안함이 있었다. 잠시나마 선수들에게 실망했던 마음이 100% 미안한 마음으로 바뀌었다.

좋은걸 좋다고 하지 누가 굳이 싫다고 하겠나. 단순히 이 이유만은 아니었겠지만, 국가대표팀 외에는 팀조차 없는 여자아이스하키 선수들에게는 단일팀같은 이벤트보다는 선수로써 꾸준히 뛸 수 있는 소속팀들이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 북한에는 6개 팀이 있다고 한다.

2. '내 삶은 내가 지켜야 한다'

북한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통해 많이 듣는 말은 최근 북한의 변화 속도가 한국보다 더 빠른 것 같다는 것이다. 익히 잘 알려진 것처럼, 배급제가 무너진 후 '내 삶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급속도로 퍼져나간다²⁾고 한다. 그런데 '내 삶은 내가 지켜야 한다' 이거 진짜 많이 듣는 말이 아닌가. 그래 '누구도 책임져주지 않는다' 그래서 '안정된 직장'을 구해야 하고 '자기 집'이 있어야 하는 거라고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오지 않았던가. 이런 마당에 누가 누구에게 '이기적이다' '자기 밖에 모른다' '자기 행복만 추구한다' 말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전쟁의 폐허 위에 놀라운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 낸 선진국으로 자랑할 것이 많다. 그러나 이런 찬란한 성취의 이면에 짙은 그늘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 특히 IMF이후 더욱 심화된 양극화, 불평등의 모순은 너무 견고해서 쉽게 바뀔 것 같지도 않다. 우리 청년이 처한 현실을 얘기하면서 'N포세대', '금수저·흙수저', '헬조선', '이생망'과 같은 말이 함께 거론될 때 그야말로 자괴감이 든다. 우리 회사만 하더라도 직원 대다수가 비정규직이다. 불안한 일자리와 집값은 결혼과 출산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러한 딱딱한 현실을 증명하듯 언론에 종종 등장하는 국제적인 지표(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집합지표)에 비춰 본 우리나라의 현실은 충격적이다. 삶의 질이 개인소득에 정비례할 만큼 국가의 부재를 드러내고 있고, 사회 불평등이 심하니 인간존엄지표도 낮을 수밖에 없다. 13년째 자살률은 1위, 출산율은 꼴찌다. 직계존속 살인비율, 노동시간, 노인빈곤율 등 이 모든 지표에서 OECD 최하, 최악이다.³⁾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일이 분단에 기인한 것이라해도, 한반도의 정세가 직접적인 생존의 위협을 주지 않는 한 '한반도의 평화'에 다소 거리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만큼 당장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당면한 과제가 버겁다. 분단 상황을 보고 거룩한 불만족을 느끼는 사명자 혹은 오타구적 열정으로 한반도 이슈에 관심이 충만한 친구들, 나와 같은 이해관계자가 아닌 이상 '남북관계, 한반도의 평화와 같은 이슈에 큰 관심을 두기 어렵다. 삶이 고단할수록 그런 외부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버겁다.⁴⁾

2) 복음과상황(2016년 6월호), [레드레터 크리스천] "북한인권 문제 해결 전 까지, '기록'을 멈출 순 없지요"

3) 박명림, 중앙일보 2017년 11월 17일자 [중앙시평] '민주화30년: 성찰과 과제'

4) 요즘 우리 업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물들어 올 때 노 젓는다고 요즘 우리 업계가 들썩인다. 남북화해, 평화무드에 따른 각종 예산이 쏟아질 것을 기대하며 이런 저런 움직임을 보인다. 모든 것은 '통일교육/평화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결과라며 대목을 잡고자 출렁이고 있는 것이다. 우울한 정황의 좀 더 근본적인 삶의 맥락을 짚어보고자 하는 것이다.

4월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북측의 요청으로 우리 가수들이 북에서 공연을 하는데 공연제목이 '봄이 온다'라고 한다.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오는 것을 표현한 것 같은데 우리의 고단한 삶에도 '봄이 오길' 고대한다. 한반도에 화해와 평화가 충만해진다고 해도 내가 불행하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 각 개인의 삶이 살만하고 평화로울 때에 '한반도의 평화가 더욱 의미있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다. 통일 준비와 관련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가장 좋은 통일준비는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해야 하는 것이라기보다 '지금' '여기' 우리 사회를 사람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다.

3. 평화, 슬기로운 청년들에게 묻는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슬기로운 생활을 누릴 것인가?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슬기로운 청년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삶의 고단함이 한반도 평화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⁵⁾ 그러나 우리의 삶이 좀 나아진다고 곧바로 평화에 대한 관심이 더불어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 다만 좀 더 넉넉하고 여유로울 수 있다면, 이 주제를 좀 더 편하게 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근본적으로 '평화'는 어디에서 오는가? '한반도의 평화'라는 것은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것인가?부터 다시 짚어보아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라는 이슈는 우리가 꿈꾸며 지켜나가야 할 이슈지만, 이것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우리의 능력밖에 일에 대해서는 근심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일이 아니라고 초월자에게 '말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에 주목하고 따르면 되는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 이슈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북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편견에 관한 것이다. 본인 또는 부모가 북한에서 와 북한 배경을 가진 아이들은 자신의 배경이 노출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한다. 또한 이런 아이들이 많이 있는 학교에는 이 아이들을 위하여 북한에서 오신 선생님들이 한 분씩 있다. 이분들이 맡고 있는 긍정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교무실로 전화를 걸어 '학교에 북한에서 온 선생님이 있나요?' 물으며 불편해하는 학부모님들도 있고 북한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는 심지어 자녀를 조용히 전학시키는 사례들도 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와 닿지 않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북한 출신 교사에게 아이들의 수업을 맡길 수 있을까? 또는 북한 배경을 가진 사람과 결혼할 수 있을까?

종종 국제뉴스를 통해 '분리독립'에 대한 소식을 듣는다. 어떤 이유에서건 하나였던 나라에서 분리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우도 향후 어떤 모양으로든 지 체제가 통합된다거나 군사적 충돌의 위험이 없는 평화체제가 구축된다고 해도 그것은 외연상의 평화일 뿐이다. 그것은 시작점일 수도 있지만, 완전한 평화를 이루려면 제도적 차원 이슈 외에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단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쟁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곳도 인간의 마음속이다"라는 유네스코 헌장의 정신처럼 평화는 국제적,

5) 사탄이나 마귀와 같은 악한 존재가 있다면 그는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라는 이슈에 관심 갖지 않도록 우리를 더욱 더 바쁘고 고되게 몰아가는 일을 할 것이다.

정치적 이슈 이전에 마음의 문제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할 때 국제사회는 대북제재의 강도를 높이고 미국과 우리는 사드를 추가 배치하고 폭격기를 띄우며 군사적인 무력시위가 뒤따른다. 궁극적으로 북핵을 잡을 수 있는 건 사드 미사일이 아니라, 사랑의 원자탄뿐이라고 믿고 있지만....., 불편한 한반도 뉴스를 접할 때,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지만, 대답하기란 너무 어렵다. 슬기로운 청년들에게 평화를 위한 지혜를 구한다.

□ 전체 토의

1. 질문

- 통일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는데,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없다면 타 국가에서 분단하게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또한 탈북민에 관심이 있는데, 종교를 비롯해서 탈북자 토크쇼들이 많이 있다. 탈북민들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통일이 평화로 가는 수단일 때만 의미가 있다는 것이 공감이 되었다. 북한과 미국이 적대적인 말 폭탄을 가져다가 평화모드로 전환되는 것에 좋으면서도 무력감들이 든다. 국가 지도자들에 의해서 평화로운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역사속의 협력. 독도가 북한 땅이 아님에도 그렇게 했다는 것에 희망을 느꼈다. 바로셀로니아에 간적이 있었는데, 아파트마다 노란리본이 달려 있고, 까탈로니아 독립문제가 있다.
- 저희가 통일을 하려면 국가보안법이나 주한미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구체적인 실천까지 담아주셔서 감사하다. 카톡 짜라시가 올 때 답장하라는 것이 새로웠다. 이 사회가 굉장히 분주하고 저희 사회만으로도 경쟁이 있으니까 피로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기에 평화까지 생각하기에는 너무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로 나아가는 구체적인 발걸음을 찾아봐야겠다고 생각을 해봤다.
- 저는 친구들이랑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의식적인 부분들도 중요한 것 같다. 청년세대의 의식을 바꾸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김정은의 사진에서 공격적인 위협보다 방어적인 사진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점의 전환이 있었다. 이러한 관점들은 대부분 언론을 통해서 형성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주체적으로 혹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다.

- 저 또한 지식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시각을 세울 수 없었던 게 많이 와 닿았습니다.
- 흔히 강의하신 것처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기도하고, 북한과 직접 대화하는 것이 앞문 선교라고 한다면, 뒷문 선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북한 청년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비전들을 심어주기에 너무 힘들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북한 선교에 대해서 열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카톡 뉴스를 전달하고 유통하더라구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국가연합과 연방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한국과 북한의 통일 구조에서 어떤 것이 좋을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또한 핵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어머니가 평양분이시다. 통일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느낌보다 혈족이라는 느낌이 든다. 통일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있는데... 통일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체제도 같이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방식이 옳을지. 청년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 우리가 실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과제가 될 것 같다. 일단 우리 새터민들하고 어떻게 교제하고 만나고 방법이 있을지 물어보고 싶고, 그런 친구들을 만났을 때에 유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 통일을 실재적으로 준비하는 모습, 살아가는 모습에 도전이 되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통일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있을지 고민이 된다.
- 많은 생각이 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것을 기도해야할지, 무엇을 붙들고 기도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 통일이 아니라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보야 할 것이라는 것이 마음에 와 닿았고, 총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 말씀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베타적 감정이 있는데, 이러한 베타적 감정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 많이 알고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공부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전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야 하고, 교회 내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말을 할 수 있을지, 믿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 답변

- 윤환철 사무총장 :

여기에 오신 분들은 지식을 구하러 오신 분들이다. 이미 게임이 끝난 분들이다. 이 자체가 사인이다. 구체적인 책을 권해드릴 수 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버리셔도 된다. 억지로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 자체가 많은 생산성을 가져 오지 않는다. 통일을 안 좋아한다고 했는데, 안 좋은데 통일을 왜 원하느냐? 반드시 통일은 유익한 것이어야 한다. 유익하지 않은 것은 거부해 버리면 된다.

우리는 촛불을 경험한 세대이다. 안 좋은 대통령은 안 받아들이면 된다. 좋지 않은 통일을 거부하면 된다. 그러한 맥락에서 연방제니 연합제를 고려하는 것이다. 지금 현재 하나로 합쳐지는 곧바로 통일한다면 짐이 될 것이다. 누군가에게 짐이 된다는 것을 하고 싶어할까? 왜 곧바로 합쳐지지 않고 경계를 두느냐? 서로 가까워지려고 디자인하는 것이다. 북한의 환자들은 남한의 병원으로 입원할 것이다. 병원가면 천 번 번호표를 나눠줄 것이다. 북한의 일자리가 있을까? 우리 일자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 오래 떨어져있던 두 사회의 통합은 수준을 비슷하게 맞춘 후에 통일하는 것이다. 차이를 30% 이하로 낮춘 후에 통일하는 것이 부작용이 덜하다.

남북한의 질서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미움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하나의 사회가 이루어졌느냐의 기준은 협력이 이뤄졌는가이다. 이 기준은 제도에 대한 부분이다. 제도적으로 불가항력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의 사회이다. 역사적 협력을 말씀드렸다. 역사적으로도 북한의 독립운동가는 남한 내에서 구분하지 않는다. 역사적 협력은 끊어지지 않았다. 남북한은 이해하기 힘들더라도 할 수 없다. 역사적으로 협력의 관한 사항에서는 하나의 민족과 사회로 협력하되 타국으로서의 존중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정재훈 회원

유의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 맞다. 저희도 어떤 심리 상담을 맡기더라도 사전 교육을 한다. 상처들을 줄이려는 노력들을 한다. 한국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부지런하고 매운 거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아니다.

북한 주민들도 마찬가지로이다. 북한 주민들도 다양각색이다. 하나의 통일된 색깔로 말하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오는 사람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저는 아이들을 만나고 어머니들을 만나면서 드는 생각은 진심은 통한다는 생각을 한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과가 느리게 나타날 수도 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기다릴 수 있다.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게 필요하다.

목상이 모자라서 말씀을 보면 막히는 것이 있다. 불편한 것을 보면서 선으로 악을 이길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걱정하는 것은 사적 보복 같은 것이다. 이 분이 우리 가족을 해

하였다.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고민을 빠지게 된다. 그런 부분에서 평화와 연관이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무력감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을 구분해야 하고, 맡긴다고 생각하는데, 기도로 조정해야 한다. 여러 이슈들 사람이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작은 실천이라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